

신임 회장에게 바란다.



||| 장규호
(사)한국오리협회 고문

얼마전 기축년의 사작을 알리는 우리의 명절 설날을 맞았다. 지면상으로나마 회원들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본다.

지금의 상황은 어제 KDI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금년도 경제 성장율이 0.7%에 달할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이다. 그나마도 각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마이너스 성장을 보다는 훨씬 후한 예측이다.

이래서 기축년은 경제적으로는 암울한 해가 될 수밖에 없지만 소득수준은 낮아도 인생의 만족도는 우리보다 높은 방글라데시의 경우처럼 우리도 마음을 바꿔 먹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꼭 안 먹어도 되는, 즉 생활필수품이 아닌 오리업계의 판매는 저조할 것이 예상되며,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업계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과 땀이 필요하다.

그리고 4~50대만 되어도 예전에 배운 지식의 활용이 컴퓨터에 의하여 표출되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기술이 필수불가결해 졌다.

이런 상황은 날이 갈수록 심화 될 수밖에 없다. 금년 같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해에는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쌍방향 의사교환이 필요하다. 무조건 만들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좋아할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채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 오리협회를 이끌어갈 사령탑으로서 이창호씨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차제에 신임회장에게 거는 기대를 몇 가지로 요약 하겠다.

◎업계 종사자 간에 화합을 도모하자.

그동안 업계가 이만큼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간 잘해왔기 때문에 협회 설립 원년인 92년도에 200억원이었던 농림업 생산액이 2007년도에 약 32배의 성장을 보인 것이 아닌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최근 뉴스에 한우가격이 수입쇠고기가 들어온 이래,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 기능성 한우 개발에 진력한 성과이다. 오리 관련 제품을 보라. 거의 70~80%이상이 기능성 오리이다. 최근에도 가금업계 원로분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자랑을 하고 왔다.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해서 오리업계는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오리업계종사자들은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데 협회에 와 보면 칭찬하는 말 보다는 설전이 대부분이었다. 서로 입장이 틀리다고 해서 반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로 타인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나만 잘났다고 목청을 높인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에는 전부가



다 못한 사람이 될 뿐이다. 이제 서로를 인정하고 같이 잘난 사람이 되어 보는 것은 어떤가?

◎가용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자.

오리협회가 태동 된 지 18년이나 지났다. 그동안 업계는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다. 회고해 보면 옛 날에는 꿈에나 나왔던 일들이 현실화 되는 사건이 생겼다.

거의 전에 경험하지 못 했던 일들을 경험해 왔다. 회장이 아무리 똑똑 하더라도, 회장 혼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다못해 구멍가게도 혼자 하면 힘에 부치기 마련이다. 판매할 물건을 사올 사람도 있어야 하고, 또 종일 가게를 지킬 사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일을 할 사람이 있는데도 할 여건을 만들지 못해 할 일을 못 한다면, 협회일은 개인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능력의 유무는 물론 직무유기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오리업계에도 자문을 해 줄 충분한 인력이 있다. 사람을 키워야 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 회장 혼자 북치고 장구 치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업계의 소프트웨어의 확보가 절실하다.

그동안 오리업계는 하드웨어는 거의 갖춰졌지만 소프트웨어가 없다. 암만 좋은 컴퓨터도 그것을 잘 활용할 유능한 인재가 없다면 하등의 가치가 필요 없지 않은

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커진 하드웨어에 걸맞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왔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사활이 걸릴 정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오리업계는 변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곧 도태되고 만다는 말은 생소한 말이 아니다. 비단 이 말은 오리업계만이 아니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오리업계가 타 축종에 비해서 연륜이 짧아 생각이 짧을 것 같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와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흡사 조로증에 걸린 늙은 청년 같다고나 할까?

급년도 자조금이 5억이라고 한다. 단 1원이라도, 효율적으로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꼭 필요한 데 써야 할 것이다. 자조금은 오리업계가 어렵게 여건을 마련한 이상, 자조금을 조성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해 경남 양산에 있는 오리박물관을 방문했다. 오리와는 아무 인연이 없던 사람이 각종 오리관련 자재나 소품들을 모아 놓고 전시해서 여러 차례 매스컴의 조명을 받았다. 사실 필자는 문득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오리협회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당시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협회와의 교류도 없었기에 협회에 이야기해서 오리마을 회지를 보내주도록 하였고, 아직 약속을 못 지켰지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협찬해 주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왔다.

또 지난해에 특기할 사항은 블로그를 만들어서 닥터덕 이벤트를 해 본 것이다. 물론 얼마안가서 AI로 인해 중지 했지만 많은 블로거들과 격의 없는 대화 속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실감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대화



란 것이여기처럼 활발한 곳이 어디 있겠는가? 아직 블로그에 방문하지 않은 회원분들께서는 한 번 방문해보시기 바란다. 보시고 댓글도 달아 주시고 하면 고맙겠다. (주소는 www.dr-duck.co.kr이라 쳐도 되고 한글로 닥터덕이나 닥터덕이벤트라고 치면 된다.)

바로 이런 일들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오리를 잘 키워 제품을 생산해 많이 파는 것이 오리 업계의 당면 숙제였다.

물론 그 일은 엄청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일들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오리고기 장사로만 인식 되지 말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일에 착수해보는 것은 어떨는지?

◎AI하면 오리, 이런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AI 발생 화면에 등장하는 오리 사진은 크게, 될 수 있으면 저저분하게 연출되고 심지어 닭으로 인한 기사에도 오리사진이 대분짜만 하고 닭 사진은 작게 나온다.

이에 국회차원에서 AI로 피해 보는 양계농가 대책으로 매주 수요일을 닭고기 먹는 날로 제정하자 하는데 매우 고마운 일이기도 하나 오리만 쏙 빠져있어 “밥상 차리는데 수저 하나만 더 놓으면 될 것을...”하고 혀를 차게 하는 사건 중 하나이다.

협회에서는 얼마간의 지원을 받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AI발생이 이런 부당한 처우를 겪으면서도 정부에 어필하지 못하는 데 대하여 반성해야 한다. 결국 닭에 비하여 심각한 오리고기 소비 감소, 이로 인한 오리업계의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수십 배 큰 피해를 불러온다.

또 AI 발생의 원흉은 오리라고 생각되도록 하는 가금 산업 관계자들의 발언, 즉 오리가 없으면 닭의 AI는 없을 것처럼 말하는 풍조는 이제 고쳐져야 하며(참고로 작년도 AI 원발은 닭이었음) 위에 말한 내용이 시정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적어 보았다.

처음 출범하는 이창호 대표의 진수식에 앞서 주문이 많은 것 같아, 미안스런 마음이 있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어려움을 각오하고, 위기를 헤쳐 나가자는 취지이며, 회원들이 일치단결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면 이창호 대표의 앞날은 밝을 것이다. 끝으로 지난 3년 동안 열성으로 협회를 이끌어 온 김만섭 회장에게 감사드리는 바이며 이제 그동안 미진했던 개인사업에 매진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기를 바란다.

